

2/14/16

설교 제목: 한 영혼에 목숨거는 교회가 됩시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누가복음 15:1-7

(눅 15: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눅 15: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눅 15: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눅 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눅 15: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날 하나님께서 천당과 지옥을 둘러 보셨습니다.

천당은 사람들이 들끓어 발디딜 틈도 없는데 지옥은 사람이 없어 썰렁했습니다.

지옥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보더니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하셔서 지옥으로 와야 할 사람이 다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그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기시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 제 1 계명, 2 계명, 3 계명..... 을 차례대로 봉독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가려내 지옥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천당에는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둘러 보시고 이렇게 다 지옥을 보내면 안되겠다 싶어 천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천당에 끝까지 남아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러실려면 십계명은 왜 만드셔서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실 줄 알았더라면 저도 다른 사람들 같이 십계명 지키지 않고 적당히 살다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천하에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일제 고사라는 것이 있어 일년에 한번씩 전국이 똑같이 전과목 시험을 치러 학교별, 학생별 실력 평가를 했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다는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들러오시더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몇 문제 나왔으니 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학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너무 처지면 어쩌나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 공부와는 상관없이 선행 학습으로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었던 저는 이게 무슨 말도 되는 않는 소리인가 싶어 갑자기 일어나 그러시면 안된다고 적극 항의하여 결국 그 선생님은 답을 알려 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서 전국 여자 중 1 등, 남녀 합해서 12 등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겠다고 걱정하셨으니 사람되라고 그동안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제 안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잔재까지 깨끗하게 씻어 버려 주님과 같은 뜻을 품은 자가 되기 위해 눈물로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은 백 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놓아 두고 온 데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각자의 입장을 헤아려 재 조명해 봅니다.

우선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추종했던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개인 행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목자가 주는 지침을 잘 따랐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러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욕망도 있었으나 혹시 다른 양에게 피해를 줄까봐 서로 삼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 안듣고 문제만 일으키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오늘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러 어디를 간 것인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아니 한편 생각하면 오히려 잘됐다 싶습니다.

그동안 문제만 일으켜 골치 아팠는데 아주 없어져 버렸으니 이참에 그놈 원래부터 없었던 셈치고 우리끼리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목자는 그 놈을 찾겠다고 우리를 팽개치고 미쳐 나갔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그 놈 때문에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하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화를 가라 앉히고 생각해 보니 목자에게 살짝 감동이 옵니다.

그토록 망나니 짓을 한 놈을 그래도 목자라고 찾아 나서다니 말입니다.

저렇게 망나니도 소중한 여기는 목자니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소중한 여겨 주겠지 싶어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그놈 찾느라 애쓰고 있을 목자가 안쓰러워 남은 우리는 알아서 제 할 일을 하며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일탈한 양의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가 왜 목자의 말을 듣고 저들과 꼭 함께 다녀야 하나?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권리가 없단 말인가?' 하는 생각으로 집단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곳 저곳 기울이며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맛있는 풀도 뜯어 먹으며 한껏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 다녔습니다. 진작 이럴걸.....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사방이 어두워지고 길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표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은 틀림없이 그들의 먹이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 가자니 길도 찾을 수 없고 그동안 자신이 애를 많이 먹여서 목자도 친구들도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납니다. 두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골치거리였던 그 양이 이번에 기어코 일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고 속이 상합니다. 화가 치밀어 이놈 죽던 말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이고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죽고 말 그놈 생각에 가슴이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망나니 짓은 했어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놈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 살려야지'하는 생각으로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을 놓아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trouble maker 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절망과 후회로 눈물만 흘리고 있던 trouble Maker 에게 어디선가 희미하게 귀에 익은 음성이 들립니다.

설마하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반가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 갔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지칠대로 지친, 자신을 찾아 숲속을 헤매느라 나무와 풀에 긁혀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된 자신의 목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확인한 순간 너무도 기쁜 나머지 껴안고 뒹굽니다.

목자는 자신의 피곤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만큼 두들겨 패 주어도 시원찮을 trouble maker 를 어깨에 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 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습니다.

본문은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내려고 자신이 대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피흘려 죽고 결국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눅 15: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눅 15: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눅 15: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등 당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려 다니고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고 불경스러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의롭고 높게 된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극히 낮고 천해 너희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이자들도 너희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애뜻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 49: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사랑이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다니던 우리를 찾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언감생심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죄를 지어 죄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정확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백 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고 그 양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나섭니다.

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 째 없어졌다고 무슨 그리 대수이겠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찾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갑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인데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 아흔 아홉 마리가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은 바른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사이에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해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놈 운 좋게 찾아온다고 해보았자 싹수가 없어서 언제 무슨 일을 또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남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이나 잘 간수하는 것이 영리한 판단입니다.

요즈음 제법 큰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교인이 많으면 그들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도덕성, 가치관, 이해 관계 등등에 따라 별별 일이 다 발생합니다.

정말 골칫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골칫 덩어리, 나갈려면 나가라.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 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해를 무릅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 2. 하나님은 한 영혼에 목숨을 거십니다.

(눅 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지금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헤매다가 들에서 비슷한 양을 만나 데려와서 한 마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다른 한 마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잃어 버렸을 때 고아원에 가서 성별과 나이가 같은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잃어버린 자식 대신 키우면 잃어버린 자식이 대체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식을 찾기까지 미친듯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3.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찾아 나선 목자는 결국 그 양을 찾아 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5 절을 보십시오.

(눅 15: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라면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흠씬 두들겨 패 주었을 것 같은데 목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피곤한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이웃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와서 동네 잔치를 벌이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잃어버렸던 자식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의 잔치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흥분과 감격, 눈물과 감사, 찬송과 회개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빛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빛진 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값는 일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값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뜻을 같이 하여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 주님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한 영혼에 목숨거는 교회가 됩시다.